

검색엔진(SEARCH ENGINE)의 활용

신용진/대한치과정보통신학회 이사

다음 순서로 게재합니다

1. 인터넷(Internet)의 기초
2. PC 사용환경의 발전과 인터넷(Internet)
3. 윈도우(Windows) 95에서 넷스케이프(Netscape) 3.0 설치
4. 넷스케이프 네비게이터(Netscape Navigator) 3.0의 기초 사용법
5. 검색엔진(Search Engine)의 활용
6. WWW HELPER 프로그램(Plug-ins)
7. E-mail/FTP/인터넷 폰(Internet Phone)
8. 인터넷 비즈니스(Internet Business)
9. CGI, JAVA 와 정보 고속도로
10.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공유학

다음 6회 예고

WWW Helper 프로그램 (Plug-Ins)

- Helper 프로그램(Plug-Ins)
- Netscape의 중요한 Helper 프로그램

넷스케이프를 사용하여 Web에 접속해 본 인터넷 사용자들은 www이란 공동체에 자신이 일원이 됐다는 기쁨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World Wide Web의 세계는 너무나 방대하고 복잡하게 얹혀 있어 www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사실 World Wide Web은 그 낱말의 의미 그대로 엄청난 양의 다양한 정보들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매일 수천 수만의 웹사이트들이 등장하고 사라지며 새로운 정보가 간신히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복잡한 www의 세계에서 인터넷 사용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정말 찾을 수 있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웹에서 찾는 일은 결코 어렵거나 복잡한 일도 아니며 웹에서는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찾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 있다.

첫째 넷스케이프에서 자신이 자주 이용하는 웹페이지의 위치를 기억하여 쉽고 간단하게 간신히 된 정보를 찾는 방법과 둘째, 다양한 특성을 가진 검색 엔진(SEARCH ENGINE)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웹페이지를 찾는 방법이다.

지난호에서 우리는 넷스케이프에서 몇 가지 잘 알려진 www의 도메인(URL)을 가지고 해당 페이지로 Web 사이트 이동을 해 보았다. 웹사이트의 이동은 www의 도메인(URL)이 필수적이다. 도메인(URL)은 웹사이트의 주소이다. 웹브라우저에서 이 도메인(URL)을 입력하면 그 방대한 인터넷망의 어느곳이라도 정확히 우리를 데려다 준다. 자신이 자주 들르거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웹페이지의 도메인(URL)은 메모해 놓고 관리해야 한다.(실제로 종이와 펜을 가지고 메모할 일은 없을 것이다) 넷스케이프는 이런 도메인(URL)을 기억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데 바로 이것이 'Bookmark'이다. 먼저 북마크를 할 줄 안다면 www에서 길을 잃는 염려는 없을 것이다. 북마크는 원하는 웹사이트의 URL을 자동으로 저장할 수 있고, 한번 저장된 웹사이트의 북마크는 URL을 직접 입력함 없이 북마크를 클릭함으로 원하는 웹사이트에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필자는 www을 처음 사용하는 네티즌에게 첫째로 이 북마크를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

북마크 사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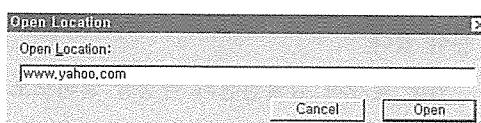
먼저 사용자가 현재 이동한 웹페이지를 북마크 하려면 우선 넷스케이프의 풀다운 메뉴에서 Bookmark를 선택하고 Add Bookmark 메뉴를 클릭한다. 다시 풀다운 메뉴에서 Bookmark를 선택하면 방금 ADD한 사이트의 북마크가 만들어 진 것을 볼 수 있다. 자세한 북마크의 내용(URL)을 살펴보거나 편집을 위해서는 풀다운 메뉴의 window에서 Bookmark메뉴를 클릭하여 Bookmark 윈도우에서 작업을 할 수 있다.

북마크를 잘 사용하면 웹에서의 이동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넷스케이프에서는 사용자들을 위해 여러 가지 웹이동이 가능한 도구를 준비하고 있다.

- 넷스케이프에서의 WEB 이동

Open Location

넷스케이프에서 WEB 이동은 우선 파일 메뉴의 Open Location 메뉴나 또는 툴바의 Open 버튼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메뉴를 선택하면 Open Location 윈도우가 열리며 자신이 이동하고자 하는 웹페이지의 URL을 입력한 후 OPEN 버튼을 누르면 넷스케이프는 URL의 웹사이트를 인터넷에서 찾아 이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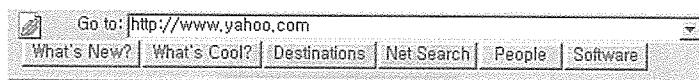


〈그림1〉

주소표시기 (Location)

주소표시기(Location)에 직접 URL을 입력하여 WEB 페이지로 이동 할 수 있다. 그림 5에서 보이는 것처럼 주소표시기(Location) 옆의 빈공간에 URL을 입력할 수 있으며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Open Location 메뉴'에 URL을 입력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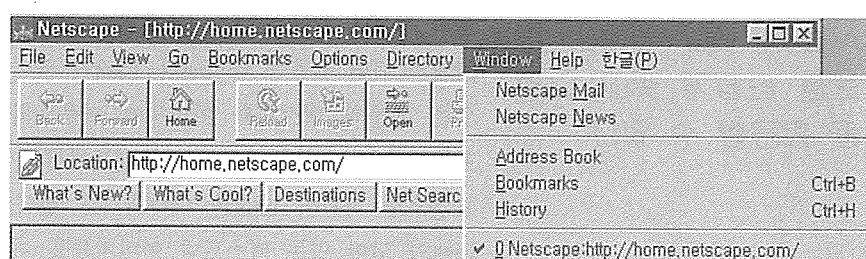
는 것과는 다르게 <http://www.yahoo.com>과 같이 전체 URL을 입력해야 하며 입력후에 이동을 하려면 키보드에 Enter키를 눌러야 한다.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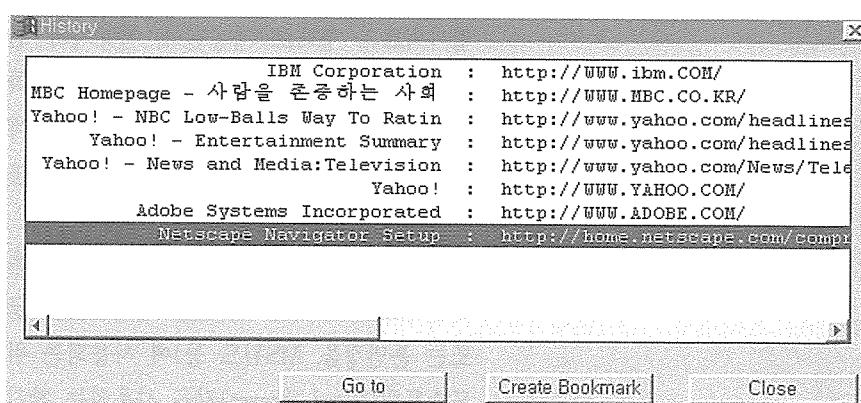
Histoy

얼마전에 가보았던 웹페이지의 URL을 기억할 수 없거나 Bookmark하지 않은 경우 History는 그동안 사용자가 이동했던 웹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쉽게 사용자가 원하는 WEB 페이지로 이동을 도와준다.



〈그림 3〉 History 메뉴

Window 메뉴의 History를 클릭하면 그림 4와 같이 History 윈도우가 나타난다. History 윈도우에는 그동안 사용자가 방문하였던 WEB 페이지의 목록과 URL이 기록되어 있다. 이 목록중 하나를 클릭하거나, Go to 버튼을 사용하면 원하는 WEB 페이지



〈그림 4〉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웹에서 찾는 일은 결코 어렵거나 복잡한 일이 아니며 웹에서는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찾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

지로 이동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Create Bookmark 버튼으로 Bookmark에 등록할 수 있다.

Back,Forward 버튼

넷스케이프의 툴바에서 Back, Forward 버튼은 웹이동에서 앞 뒤의 웹페이지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웹페이지의 Link

웹페이지의 본문에는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Link가 있다. 보통 넷스케이프에서 웹페이지의 본문에는 Link가 되어 있는 텍스트와 이미지들이 나타나는데 텍스트의 경우 파란색등으로 구별하거나 밑줄로 Link가 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Link가 되어 있는 본문의 텍스트와 이미지에 마우스의 포인트를 가져가면 포인트가 화살표에서 손 모양으로 바뀌어 Link를 나타내기도 한다. Link가 되어 있는 텍스트나 이미지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해당 웹페이지로 이동하게 된다.

- 검색엔진의 종류

웹페이지의 이동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게 됐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검색엔진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자.

검색엔진(SEARCH ENGINE)은 대부분 웹사이트의 형태로 제공된다. 사용자가 검색엔진이 있는 웹사이트로 이동하여 검색하고자 하는 검색어와 조건을 입력하고 검색을 실행하면 검색엔진은 사용자가 원하는 웹페이지들을 찾아준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검색 엔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워드프로세서(아래한글 또는 훈민정음, MS워드 등)에 사용되는 워드스트림(Word Stream)값을 사용하는 찾기(Find)의 검색 방법과는 다르다. 웹에서 사

용하는 검색엔진들은 대부분 인덱스(Index)를 먼저 만들고 그 인덱스 정보를 기초하여 무수히 많은 정보에서 설정된 검색 조건을 적용하여 빠른 시간안에 검색과정을 처리한다. 이런 방식은 워드스트림(Word Stream)값을 검색할 정보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대비하여 찾는 방식과 비교한다면 더 많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단시간내에 검색결과를 사용자들에게 보여 줄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Online)상에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전송되는 처리할 데이터의 양을 줄이고 사용자가 검색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이다.

또한 검색엔진들은 대부분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이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다행스럽고 기쁜 일이지만 실제로는 무료로 운용하고 있는 검색 사이트가 상업적으로 많은 이익을 내고 있다. 기업의 홍보효과와 다양한 자료조사에 활용되고 있으며 웹 광고시장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바로 검색엔진을 사용하는 사이트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검색 엔진으로는 야후(www.yahoo.com)와 라이코스(www.lycos.com), 알타비스타(www.altavista.digital.com) 등이 있으며 특히 한글 국내 검색 엔진으로는 심마니(simmany.hnc.net)와 까치네(biho.teagu.ac.kr/ka/) 등이 있다.

이중 몇가지 검색엔진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자.

1)야후(www.yahoo.com)

가장 많은 www 사용자가 이용하는 검색 엔진인 Yahoo는 주제별로 정리된 리스트를 제공해서 단계적인 검색을 가능하게 한다. 단순히 검색어를 입력하여 정보를 찾는 방법뿐이 아니라 예술, 비즈니스, 컴퓨터 인터넷, 교육, 연예, 스포츠, 지역 지리, 뉴스, 과

학 등의 주제별 리스트를 통해 link 되어 있는 세부항목을 가지고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2)알타비스타(www.altavista.digital.com)

알타비스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Two-byte 언어를 지원하는 검색엔진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외국 검색엔진으로 한글과 한문, 일본어를 지원한다는 의미이며 디지털 이큅먼트사의 64비트 알파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를 자랑하며 3000만개 이상의 웹 페이지를 검색할 수 있다.

3)심마니(simmany.hnc.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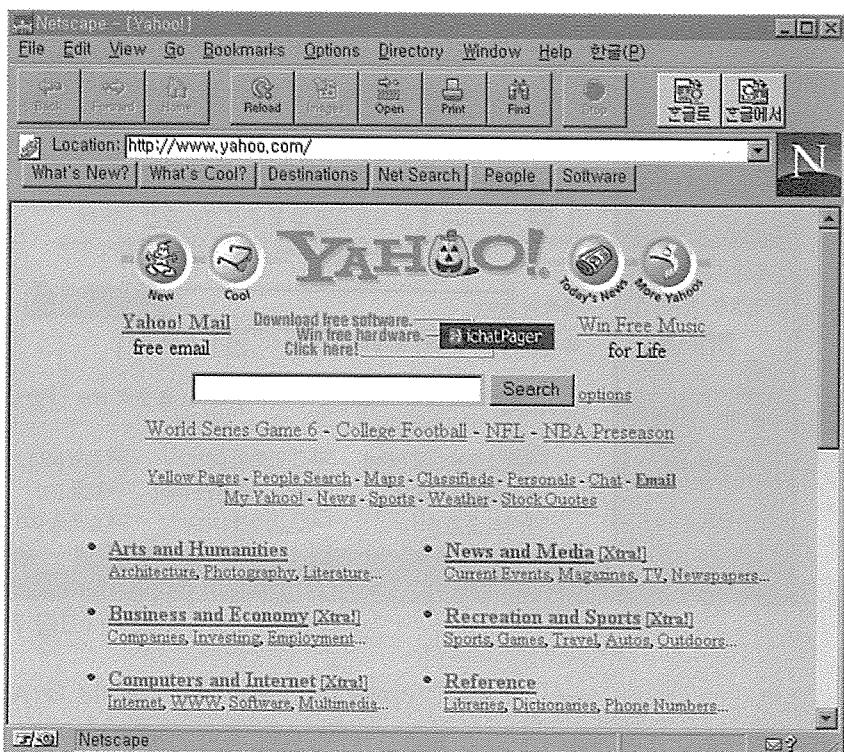
국내 www 검색엔진으로 한글과 컴퓨터사가 만들었다. 깔끔한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색어 입력 방식과 리스트 검색방법을 제공한다. 국내 웹페이지에 대한 정보가 많으며 한글로 구성되어 있어 친근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다.

검색엔진의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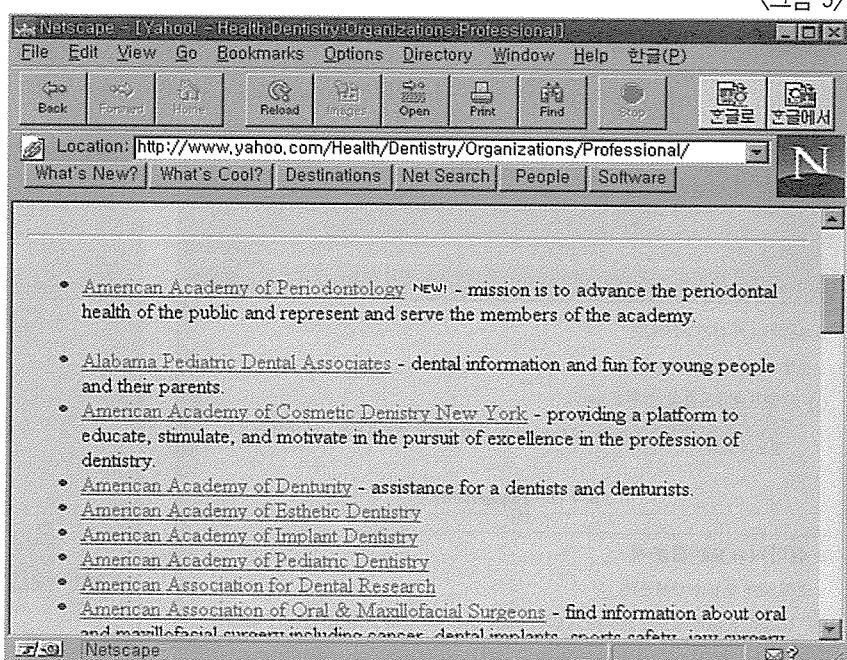
지금부터 검색진을 사용하여 www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아 보도록 하자.

먼저 야후 Yahoo 검색사이트로 이동해 본다. 앞에서 살펴본 웹이동을 참조하면서 먼저 인터넷에 접속한 후 넷스케이프를 실행시키고 파일메뉴의 Open Location 메뉴나 또는 툴바의 Open 버튼 또는 주소표시기(Location)를 사용하여 그림5와 같이 yahoo의 홈페이지로 이동한다. 검색하기 원하는 단어를 서치버튼 옆의 빈칸에 입력하고 서치버튼을 클릭하면 검색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검색엔진은 너무나 방대한 검색 결과를 가져온다. 이 때문에 Yahoo에서는 주제별 리스트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치의학에 관련된 협회에 대해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으

려면 먼저 주제별 리스트에서 Health를 클릭하고 Health의 하위 리스트에서 Dentistry를 클릭하면 또다시 Dentistry 하위 리스트가 나타난다. 여기에서 Organizations를 클릭하면 Organizations 리스트가 나오고 최종적으로 Professional을 클릭하면 알파벳순으로 정리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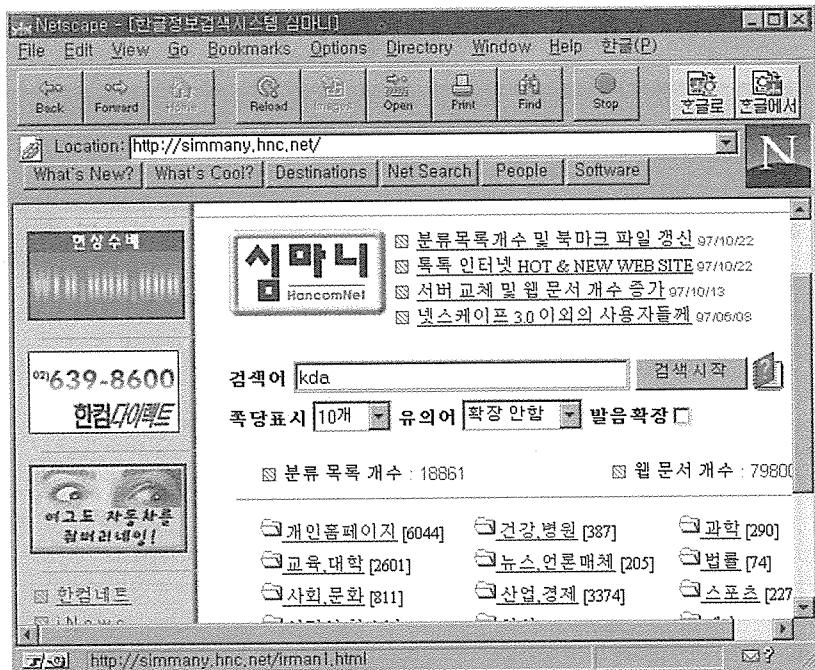


〈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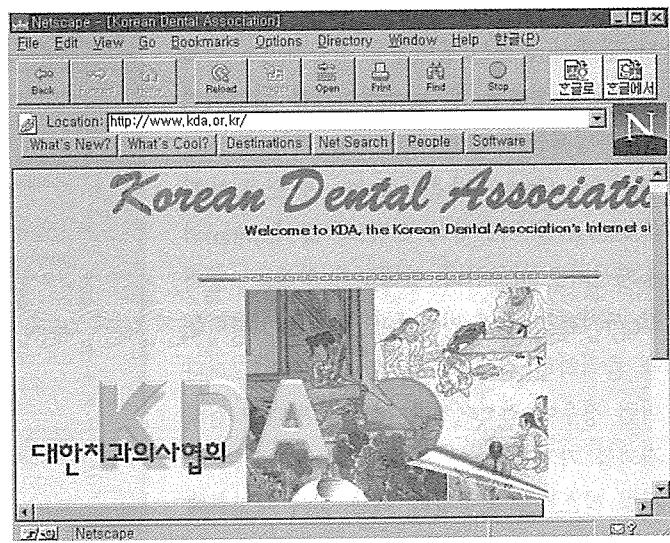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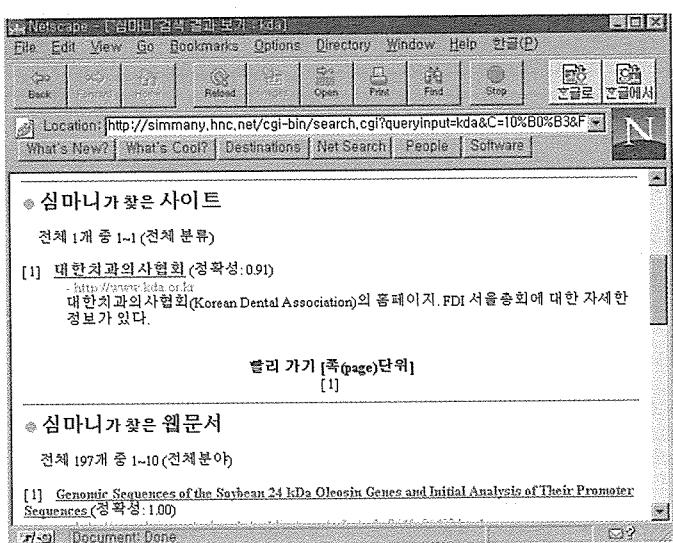
〈그림 6〉

Organizations와 관련된 많은 정보가 나오며 원하는 정보를 클릭하면 해당 웹페이지로 Link되어 본문과 자세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그림 7〉

'라이코스(Lycos)'나 '알타비스타(Alta Vista)' 역시 이런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으며 각 검색 엔진이 고유하게 제공하는 검색 조건(Option)들을 사용하면 더욱 더 정확한 검색을 할 수 있다.



〈그림 9〉

이번에는 한글 검색 엔진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심마니를 사용하여 정보를 검색해 보자.

심마니의 가장 큰 특징은 한글 www 검색 엔진으로 메뉴와 검색어 자체가 모두 한글을 지원하고 있으며 비교적 많은 국내 www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넷스케이프를 실행시키고 심마니의 홈페이지(simmane.hnc.net)로 이동하면 그림7과 같은 심마니의 검색 페이지가 나타난다. 검색어 KDA를 입력한 후 검색시작 버튼을 누르면 검색 결과가 그림8과 같이 나타난다. 여기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리스트를 클릭하면 그림9와 같이 대한치과협회의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된다.